

## 환 영 사

친애하는 국제고려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臨席하신 貴賓 여러분! 제 9 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상해 復旦대학의 여러분과 서울에서 오신 韓國學中央研究院의 金正培 원장님, 그리고 평양에서 오신 朝鮮社會科學院의 金正永 부원장님과 여러 학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朝鮮半島, 즉 韓半島는 北으로부터 들어오는 중국의 農耕文化와 北方의 遊牧文化가 서로 다투고 南方으로부터는 海洋文化도 함께 들어와 서로 角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역/력사적으로 많은 戰亂에 시달렸고 또 이 세 문화가 어울리며 새롭고 독특한 문화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하여 國土는 이웃한 섬나라 일본의 절반 정도이고 중국의 한 省에도 못 미치며 인구도 남북이 합하여 7 천만 정도의 나라가 60 억 인구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하여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우리는 코리아학이란 이름으로 부릅니다. 국제고려학회는 이 코리아학의 발달을 위하여 결성된 학회입니다. 더욱이 남북 분단의 엄정한 현실에서 해외 학자들과 남과 북의 여러 학자들이 코리아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고려학회는 渾身の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마도 북과 남, 해외의 학자가 공동으로 학회를 운영하는 유일한 학회가 국제고려학회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학회는 코리아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 모든 코리아학자들을 한데 모아 理念이나 정치 현실을 莫論하고 함께 공부하고 討論하며 학문의 발전에 寄與해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남과 북의 학자들을 연계하여 국제고려학회가 공동 연구를 주선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대단한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코리아학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떨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북과 남의 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 코리아학의 연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여러분들의 학문 발표와 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특히 炎天의 더운 날씨에 여기 모이신 여러 학회 회원들께서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무사하게 귀국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런 좋은 회의장을 빌려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上海 복단 대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이 학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수고한 국제고려학회 사무처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고려학회  
회장 정 광

- 일 시                    2009년 8월 27일(목) - 30일(일)  
Dates                    August 27 (Thurs) - 30 (Sun), 2009
  
- 장 소                    복단대학 (중국, 상해)  
Venue:                    Fudan University, Shanghai, China
  
- 언 어                    한국/조선어, 영어  
Language                Korean, English
  
- 주 최                    국제고려학회, 복단대학  
Co-organized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Fudan University
  
- 지 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Support                Korean Research Foundat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분 과                    역/력사 History    언 어 Linguistics  
Sessions                문 학 Literature    사회/교육 Sociology / Education  
정 치 Politics        경 제 Economics  
예술/민속 Art / Folklore  
철학/종교 Philosophy / Religion

**국제고려학회 본부사무국**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5th Floor OIC Centre, 2-2, Funahashi-cho, Tennouji-ku,  
Osaka, Japan  
Tel : +81-6-6768-8425 / Fax : +81-6-6763-5080  
Email : isks9th@isks.org    <http://www.isks.org/>

대회일정

2009 년 8 월 26 일(수)	13:00-19:00	등록
	19:00-21:00	리셉션(복단대학 외국어어문학대학 주최)
2009 년 8 월 27 일(목)	09:00-09:20	개회식
	09:20-10:20	기조강연 - 김정배(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정영(조선사회과학원)
	10:40-12:10	분과회<A>: 역/력사 1, 언어 1, 문학 1, 정치 1, 사회/교육 1
	12:10-13:00	점심
	13:00-14:30	분과회<B>: 역/력사 2, 언어 2, 문학 2, 정치 2, 사회/교육 2
	14:30-14:40	휴식
	14:40-16:10	분과회<C>: 역/력사 3, 언어 3, 문학 3, 정치 3, 사회/교육 3
	16:10-16:20	휴식
	16:20-17:50	분과회<D>: 역/력사 4, 언어 4, 문학 4, 경제 1
	18:30-21:00	환영만찬
	2009 년 8 월 28 일(금)	09:00-10:30
10:30-10:40		휴식
10:40-12:10		분과회<F>: 역/력사 6, 언어 6, 문학 6, 경제 3, 예술/민속 2
12:10-13:00		점심
13:00-14:30		분과회<G>: 철학/종교 1, 언어 7, 문학 7, 경제 4, 예술/민속 3
14:30-14:40		휴식
14:40-16:10		분과회<H>: 철학/종교 2
16:30-17:30		국제고려학회 총회 및 폐회식
18:00-20:30		환송만찬(한국학중앙연구원 주최)
2009 년 8 월 29 일(토)	 답사(희망자)	
2009 년 8 월 30 일(일)		

## Schedule

13:00–19:00 Registration  
19:00–21:00 Dinner(Hosted by College of Foreign Language and Literature,  
Fudan University)

August 26, 2009

09:00–09:20 Opening Ceremony  
09:20–10:20 Keynote Presentations  
– Kim Jung-Bae(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im Jong Yong(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August 27, 2009

10:40–12:10 Panel<A>:  
History 1, Linguistics 1, Literature 1, Politics 1, Sociology/Education 1  
12:10–13:00 Lunch  
13:00–14:30 Panel<B>:  
History 2, Linguistics 2, Literature 2, Politics 2, Sociology/Education 2  
14:30–14:40 Break  
14:40–16:10 Panel<C>:  
History 3, Linguistics 3, Literature 3, Politics 3, Sociology/Education 3  
16:10–16:20 Break  
16:20–17:50 Panel<D>:  
History 4, Linguistics 4, Literature 4, Economics 1  
18:30–21:00 Reception

09:00–10:30 Panel<E>:  
History 5, Linguistics 5, Literature 5, Economics 2, Art/Folklore 1  
10:30–10:40 Break  
10:40–12:10 Panel<F>:  
History 6, Linguistics 6, Literature 6, Economics 3, Art/Folklore 2  
12:10–13:00 Lunch  
13:00–14:30 Panel<G>:  
Philosophy/Religion 1, Linguistics 7, Literature 7, Economics 4. Art/Folklore 3  
14:30–14:40 Break  
14:40–16:10 Panel<H>: Philosophy/Religion 2  
16:30–17:30 ISKS General Meeting and Closing Ceremony  
18:00–20:30 Banquet(Hosted by th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ugust 28, 2009

Cultural Tour(Optional)

August 29, 2009

|  
August 30, 2009

기조강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 정 배

韓國學과 國際化

韓國學(Korean Studies)은 그 의미를 협의로 정의할 때 文, 史, 哲의 학문 분야를 지칭한다. 그러나 광의로 그 뜻을 확대하면 文, 史, 哲의 학문성과가 現在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統一 등과 같은 學問과 접목되어 연구되는 一切의 현상을 일컫는다. 오늘의 世界가 多人種 多文化와 더불어 사는 地球村의 시대이므로 韓國學을 廣義로 정의하면 논의 과정에 대과가 없다.

韓國學은 한때 帝國主義와 대항하기 위해 民族主義 입장에 서서 연구를 한 시기가 있고 그것은 그 나름으로 정당성과 값있는 학문성과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나라를 찾기 위해, 그리고 民族의 正體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民族主義는 한때 韓國學의 근저에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民族主義는 千의 얼굴을 갖고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따라 그 효능이 빛을 발하기도 하는 장점도 분명 있다.

오늘의 세계는 國際化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따라서 韓國學은 전 세계의 학자가 각자 관심분야를 연구하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 韓國學이 多人種, 多文化 社會 속에서 연구해야 하는 학문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폐쇄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제화의 길로 과감하게 진입해야 한다. 多文化가 나라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나라 안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므로 韓國學의 국제화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미 와 있다. 多文化 사회의 특성은 다양성과 역동성이 본질이며, 바로 그 때문에 오늘의 韓國學은 국제화의 반열에 올라 國家 브랜드의 최정상을 차지하는 분야로 자리를 잡았다.

韓國學은 國內, 海外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正體性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학문이며 그런 점에서 韓國學의 연구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과제를 함께 논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다. 지구촌 시대의 이주, 이산(Diaspora)은 韓國學을 왜 國際化의 관점에서 眺望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단적인 예가 된다.

## 조선에서의 조선학연구정형과 방향에 대하여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나는 우리 나라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리해를 가지고 조선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보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는 국제고려학회의 명망높은 학자들과 벗들을 다시 만나게 된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 대표선생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선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사변들을 안고있는 뜻깊은 해에 열린것으로 하여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될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고려학회의 평양지부에 망라되어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조선학의 모든 분야를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왔습니다. 또한 조선학을 연구보급하는 세계 많은 나라 학자들과의 공동연구와 저술, 학술교류를 여러가지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로 조선학연구의 옳은 방향을 밝혀주시고 우리 과학자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기에 조선학의 여러 분야들이 빨리 발전하는 큰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과학부문에서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사상리론에 대한 연구를 폭넓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관심사는 없으며 모든 과학은 바로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과학은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방도를 밝혀주는데 그 사명이 있으며 인간의 운명개척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그 가치가 규정되게 되는것입니다. 조선학도 여기에서 예외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운명개척의 앞길을 세계관적으로 밝혀주는것을 근본사상으로 내세우고 인간의 운명개척, 자주성실현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지침으로 삼고 구현하여야 조선학에 대한 연구사업을 인민대중의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조선학이 사람,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사상리론적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조선학연구에서 주체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조선학을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이며 민족성을 고수한다는것은 조선학연구에서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살리고 발전시켜나간다는것입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켜나가려는것은 모든 나라 민족들의 공통된 요구이며 지향입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녀이 짓밟히고 무시당하는것을 좋아할 사람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틀어쥐고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는 우리 시대에 와서는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성을 튼튼히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려나가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서게 됩니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고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있는것만큼 과학연구사업에서 반드시 주체성, 민족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자기 나라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참담게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난 시기 조선학연구보급사업에서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은 언제나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견결히 고수하였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학을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발전시키며 조선학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살려나갈것입니다. 조선학연구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는데서 우리들이 특별히 경계하고있는것은 사대와 외세의존, 교조적인 관점과 태도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는데서 다른 나라의것은 덮어놓고 좋고 자기의것은 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큰 나라만 쳐다보고 그에 의탁하며 큰 나라의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려는 사대와 외세의존, 교조적인 사상관점과 태도가 허용되면 민족의 존엄과 녀을 지켜낼수 없고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없게 되며 나라와 민족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없게 된다는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력사주의원칙은 주체성, 민족성과 함께 조선학연구에서 우리들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원칙입니다. 력사주의원칙은 사물현상들을 발생, 발전의 구체적인 조건들과의 련관속에서 력사적으로 고찰하는 방법과 태도로서 과학적인식방법의 중요원칙의 하나입니다.

모든 과학지식은 객관성과 진실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물현상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고찰하거나 진실을 외곡한다면 그것은 벌써 과학이 아닙니다.

객관세계의 사물현상들은 일정한 조건밑에서 다른 대상들과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것만큼 사물현상들의 본질과 발전의 합법칙성을 력사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하여야만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인식할수 있습니다.

력사주의원칙은 조선학을 연구하는데서도 반드시 구현되어야 합니다.

조선학에서 력사주의원칙을 구현한다는것은 조선학의 모든 연구대상들을 발생발전의 구체적인 조건들과의 련관속에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고찰함으로써 그 진실성을 확고히 보장한다는것입니다.

우리는 조선학연구에서 연구대상들을 구체적인 조건, 역사적인 환경과의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고찰하는 구체성의 원칙과 매개 연구대상의 변화발전에 작용하는 객관적합법칙성에 의거하는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역사주의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때 주관에 빠지거나 좌왕우왕하면서 현실을 외국하는 편향을 범하지 않고 참다운 과학적성과를 이룩할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만약 모든 문제를 역사적인 조건과 환경, 그 객관적합법칙성에서 떼내어 추상적으로 보거나 주관주의에 사로잡혀 객관적인 역사적발전과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물현상을 고찰한다면 기필코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외국하는데로 굴러떨어지게 될것입니다. 지금 조선의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이모저모로 외국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는데 우리는 조선학연구에서 진실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남에게 우리의 역사가 외국되는데 대하여 철저히 경계하며 그 자그마한 현상에 대하여서도 용납하지 않고 반대배격할것입니다.

시대적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맞게 조선학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국제고려학회 평양지부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부는 국제고려학회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있게 하는 한편 모든 학술단체들이 전망적인 목표를 가지고 현실적조건에 맞는 연구과제수행에 연구력량을 옹게 조직동원하여 학술연구를 생신하게 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고 떠밀어줄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역사가 제기하는 조선학의 중요문제들을 주제로 북과 남, 해외동포학자들과의 공동연구, 공동학술토론회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학술교류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선학을 연구하는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과의 학술적연계와 교류를 발전시키는데도 커다란 주목을 돌릴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 국제적인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에도 계속 깊은 관심을 돌리고 노력할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가 그 목적에 맞게 원만히 개최되려면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정세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조선학을 연구하는 여러 선생들이 이에 대하여 충분한 리해를 가지고 그 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의 새 시대가 전면적으로 펼쳐지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조선학연구의 모든 분야에서 일찌기 없었던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갈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뜻깊은 토론회를 통하여 여러 대표선생들이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드팀없는 신념을 지니고 조선학연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리라고 확신합니다.



● 역/력사

2009년 8월 27일(목)		
10:40~12:10	사회: 정운용(고려대학교)	
분과회<A> 역/력사 1	Hugh H.W. Kang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고구려사 취급의 해법을 찾아서
	김경삼(조선사회과학원)	《발해삼채》 도기에 반영된 고구려적성격
	장정욱(조선사회과학원)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국

13:00~14:30	사회: Hugh H.W. Kang(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분과회<B> 역/력사 2	Edward J. Shultz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Yejong: Kory ŏ's 16th Monarch
	김갑동(대전대학교)	고려전기 后妃의 姓氏 문제
	이정호(고려대학교)	高麗中期 自然災害의 발생과 生態環境

14:40~16:10	사회: 송동원(조선사회과학원)	
분과회<C> 역/력사 3	정운용(고려대학교)	청원 남성골 고구려 산성의 축조와 운용
	강세권(조선사회과학원)	조선 중세국가들에서의 동명왕제사를 통해본 고구려계승의식
	송현원(조선사회과학원)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 《비변사등록》의 사료적가치

16:20~17:50	사회: Edward J. Shultz(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분과회<D> 역/력사 4	이영학(한국외국어대학교)	朝鮮 王朝의 記錄物 生産과 管理 - 『華城城役儀軌』를 中心으로 -
	Albrecht Huwe (University of Bonn)	A 550 years old misunderstanding: The real relationship between Hunmin jeongeum (script) and the old Chinese characters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에 이혼이 가능했는가?

2009년 8월 28일(금)		
10:40~12:10	사회: 강세권(조선사회과학원)	
분과회<E> 역/력사 5	염송심(북화대학)	청나라시기 압록강이북 조선이주민에 대한 정책
	송동원(조선사회과학원)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의 국제반파쇼투쟁에서 차지하는 지위
	Fu Dehua/Ji Xin (Fudan University)	An Analysis of the Japanese Occupation Book, Offprint Banned By Korean Government

14:40~16:10	사회: Albrecht Huwe(University of Bonn)	
분과회<F> 역/력사 6	Sang-ho Ro (Princeton University)	Children Who Read Magazines The Book Market, Őrini Magazine, and 1920s Korea
	황상익(서울대학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조선인 학생과 교원

● 언 어

2009년 8월 27일(목)		
10:40~12:10	사회: 연재훈(SOAS, University of London)	
분과회<A> 언 어 1	문영호(조선사회과학원)	《겨레말큰사전》 북남공동편찬에서 언어의 민족성고수문제
	최호철(고려대학교)	받쳐 적는 우리말 증성
	이상혁(한성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우리말 교육과 남북 문제 -남북 우리말 교육 및 교재 통일 편찬을 제안하며-

13:00~14:30	사회: 송남선(오사카경제법과대학)	
분과회<B> 언 어 2	양오진(덕성여자대학교)	韓中 慣用語辭典 편찬에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윤경애(대원민족대학)	한중 정치 기사 속의 개념적 은유에 대한 일고찰
	최규발(고려대학교)	韓·中·日 미완료相 대조

14:40~16:10	사회: 강보유(북단대학)	
분과회<C> 언 어 3	장흥권(중앙민족대학)	접촉언어학으로 본 동북아시아 세 민족언어의 혼종어
	안경상(조선사회과학원)	우리 겨레의 고대글자사용시기와 분포지역에 대한 사료적고찰
	최경봉(원광대학교)	언어학 분야를 통해 본 중국 내 조선-한국학의 위상 문제

16:20~17:50	사회: 장흥권(중앙민족대학)	
분과회<D> 언 어 4	강보유(북단대학)	한중 언어 문화 -인지구조 비교로부터 본 한국어문화 교육 방법 연구
	서영빈(대외경제무역대학)	한국문화교육, 그 이론과 실제의 거리 - 중국에서의 경우
	신 천(대외경제무역대학)	한국어 시청각수업에 대한 소고

2009년 8월 28일(금)		
9:00~10:30	사회: 양오진(덕성여자대학교)	
분과회<E> 언 어 5	김양진/장항실(고려대학교)	『朴通事』의 지명 연구
	김유범(고려대학교)	『老朴集覽』 중 ‘朴通事集覽’과 『朴通事諺解』 夾註의 비교 연구
	정승혜/서형국 (수원여자대학교/전북대학교)	<朴通事>에 반영된 元代 물가와 경제 -<朴通事>의 화폐 단위를 중심으로-

10:40~12:10	사회: 문영호(조선사회과학원)	
분과회<F> 언 어 6	리근용(조선사회과학원)	조선어규범화의 기본원칙
	김영수(연변대학)	중국조선어말뭉치건설과 조선학연구
	전영남(오사카산업대학)	재일 중국 조선족의 인터넷 게시판언어에 관한 연구

13:00~14:30	사회: 최호철(고려대학교)	
분과회<G> 언 어 7	채옥자(북단대학)	동일형태소의 한·중 형용사 대조연구
	최순희(북경언어대학)	족(族)'신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PIAO WEN ZI(중앙민족대학)	한국어교육에서의 학습법에 대한 고찰
	김광수(연변대학)	1950년대 중국조선어 언어적 특성에 대한 고찰

● 문 학

2009 년 8 월 27 일(목)		
10:40~12:10 분과회<A> 문 학 1	사회: 서영빈(대외경제무역대학)	
	Helga Picht (Berlin Humboldt 종합대학)	남북 코리아 문학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하여 궁금하면서(문제제기)
	임향란(사천외국어대학)	남북한 토지 관련 문학연구 - 채만식의 (논이야기)와 이기영의 (땅)의 경우
	이상숙(경원대학교)	산운결합의 형식과 북한문학의 전통
13:00~14:30 분과회<B> 문 학 2	사회: 임향란(사천외국어대학)	
	김철민(조선사회과학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선군문학의 개화발전
	김병선(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증보와 디지털 편찬
	김동훈/한정숙 (상해공상외국어대학)	20 세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상해의 이미지
14:40~16:10 분과회<C> 문 학 3	사회: 김영(인하대학교)	
	남춘애(대련민족대학)	해방 전 재중 시국이민소설에서 본 인신매매의 의미
	심경섭(조선사회과학원)	해방전 조선인민의 존엄과 긍지를 노래한 진보적가사에 대한 연구
	장춘식(중국사회과학원)	유치환의 시와 만주체험
16:20~17:50 분과회<D> 문 학 4	사회: 김병선(한국학중앙연구원)	
	이광재(중국해양대학)	중한 단편소설 《豐收成災》형 소설비교론
	이춘매(청도농업대학)	'오리엔탈리즘'의 동양판 -김사랑의 소설 <천마>에 반영된 일본인의 조선인관
	장연호(상해상학원)	한국 訟事文學에 끼친 중국 公案類의 影響
2009 년 8 월 28 일(금)		
9:00~10:30 분과회<E> 문 학 5	사회: 김동훈(상해공상외국어대학)	
	문려화(북경공업대학)	조선시기 문집소재 열녀전에 나타난 열 이념과 현실정감의 갈등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 宋伯姬의 전설과 烈女
	황현옥(복단대학)	棄兒모티프를 中心으로 한 韓·中始祖神話 比較
10:40~12:10 분과회<F> 문 학 6	사회: 장춘식(중국사회과학원)	
	김진걸(북경제 2 외국어대학)	이조시기 시조창작과 도교사상의 영향
	배규범(대외경제무역대학)	韓國 佛家 回文詩 一考察
	박유희(고려대학교)	한국 '멜로드라마' 개념의 형성 연구
13:00~14:30 분과회<G> 문 학 7	사회: 김철민(조선사회과학원)	
	김영(인하대학교)	위당 정인보의 인간관계와 담원문록
	최유학(중앙민족대학)	박태원의 개작소설 『홍길동전』과 그의 번역소설 『수호전』의 연관성
	YU Myoung In (Ruhr-Universität Bochum)	漢文學的 傳統에서 본 『九雲夢』의 讀者와 題目

● 사회/교육

2009 년 8 월 27 일(목)		
10:40~12:10 분과회<A> 사회/교육 1	사회: 윤정수(바이카여자대학)	
	전광현(서울신학대학교)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와 과제 -일본의 경험과 비교하여 -
	박현식(호서대학교)	고령화 사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연구
	나병균(한림대학교)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가족복지정책
	박지선/진제/나카지마 카즈오 (오카야마현립대학)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13:00~14:30 분과회<B> 사회/교육 2	사회: 이병혁(서울시립대학교)	
	주옥파(대외경제무역대학)	텍스트 유형 중심의 중·한 번역교육 내용 연구 -신문기사 텍스트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영화(청도농업대학)	정독 교재에 따른 학습자 기능 형성 경향 연구 -두 교재의 자모 영역을 중심으로-
	이은교(충남대학교)	한국어 교육에서 보조사적 용법의 '가'와 '를'에 대한 교수 방안
14:40~16:10 분과회<C> 사회/교육 3	사회: 나병균(한림대학교)	
	이재학(고려대학교)	한국에서의 아시아 인접국 국가이미지 분석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German Kim (Kazakh National University)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of Korean Diaspora in the post soviet Kazakhstan
	Andrew Eungi Kim (Korea University)	Korean Multiculturalism: The Genealogy of the Concept, Shifting Meanings, Issues and Implications
	전영근(광동외국어무역대학)	중·한·일 3국 여성의 정치, 경제지위 변화 고찰

● 정 치

2009 년 8 월 27 일(목)		
10:40~12:10 분과회<A> 정 치 1	사회: 고정웅(조선사회과학원)	
	이재봉(원광대학교)	한일협정과 미국의 압력
	Rainer Dormels (University of Vienna)	동해표기와 일본 식민주의
13:00~14:30 분과회<B> 정 치 2	사회: 김병로(서울대학교)	
	고정웅(조선사회과학원)	선군정치 특성
	조호길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점과 가능성 : 중국적 시각
	Sandip Kumar Mishra (University of Delhi)	China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Changing East Asian Security Architecture
14:40~16:10 분과회<C> 정 치 3	사회: 박명규(서울대학교)	
	예대열(고려대학교)	1960·70년대 비합법 전위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리경철(조선사회과학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정아영(리츠메이칸대학)	한국 4.19 혁명과 재일 동포 사회 -한국민단계 학생 청년 운동을 중심으로

● 경 제

2009년 8월 27일(목)		
16:20~17:50	사회: 홍철화(조선사회과학원)	
분과회<D> 경 제 1	리기성(조선사회과학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고 있는 조선경제
	Nagano Shinichro (Daito Bunka University)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재일한국인의 역할
	이찬도(중부대학교)	한·중·일 엔터테인먼트콘텐츠의 시장구조와 교류협력모색

2009년 8월 28일(금)		
9:00~10:30	사회: 배광웅(오사카교육대학)	
분과회<E> 경 제 2	홍철화(조선사회과학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내용과 특징
	김상호(부산외국어대학교)	남북한 및 중국 간의 상사분쟁 해결촉진을 위한 중재협력 방안
	박상길(고려대학교)	남북 및 북중 경제교류현황과 향후 과제

10:40~12:10	사회: 김상호(부산외국어대학교)	
분과회<F> 경 제 3	배광웅(오사카교육대학)	한국 FTA 전략에 관한 고찰 - 한·칠레 FTA 교섭·타결·발효후의 평가를 중심으로 -
	Denis V. Suslov(Russian Academy of Science Far Eastern Branch)	Perspectives and Obstacles of Russia - Republic of Korea FTA Conclusion
	윤기관(충남대학교)	WTO와 FTA 체제하에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13:00~14:30	사회: NAGANO SHINICHIRO(Daito Bunka University)	
분과회<G> 경 제 4	Pavel S. Leshakov (Moscow State University)	Prospects of Russia's Engagement in Economic Cooperation with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성봉석(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해관계자 압력과 기업의 전략적 환경관리 지향성
	이춘호(상해외국어대학)	중·북간 경제협력 실태와 향후 전망

● 예술/민속

2009년 8월 28일(금)		
9:00~10:30	사회: 조대일(조선사회과학원)	
분과회<E>	신대철(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조의 궁중악대
예술/민속 1	진윤경(한국학중앙연구원)	피리(北韓, 南韓)와 히치리키(日)의 비교 분석
	리철호(연변대학)	중국 조선족 미술발전맥락 및 특징 재고 -80년대 미술발전양상을 중심으로
10:40~12:10	사회: 신대철(한국학중앙연구원)	
분과회<F>	리아순(연변대학)	中國朝鮮族藝術의 邊緣(변두리)文化效應 및 그 價値談論
예술/민속 2	최영금(할빈사범대학)	중국 조선족 전통유희의 역사적 변천과 그 교육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
	리영호(조선사회과학원)	서흥 탈놀이에 대한 고찰
13:00~14:30	사회: 리철호(연변대학)	
분과회<G>	조대일(조선사회과학원)	민족식생활전통의 토대를 이룬 고구려식생활
예술/민속 3	리민덕(연변대학)	우리 말 인명의 형태적 분석
	Beatrix Mecsi (Eötvös Loránd University)	Dokseong, Naban jonja or Pindola? The mysterious Buddhist hermit in Korea's monasteries

● 철학/종교

2009년 8월 28일(금)		
13:00~14:30	사회: 김영두(원광대학교)	
분과회<G>	류제일(조선사회과학원)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
철학/종교 1	서광웅(조선사회과학원)	인간에 대한 철학적고찰의 주체적방법론
	박맹수(원광대학교)	한국근대 민중종교와 비서구적 근대의 길 -동학과 원불교를 중심으로-
14:40~16:10	사회: 류제일(조선사회과학원)	
분과회<H>	김영두(원광대학교)	道德性 回復과 禪
철학/종교 2	Sung-Eu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amiliar but Unfamiliar Syncretism Between Korean Buddhism and Musok: Their Ambivalent Affair